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뿌리산업 범위가 10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력을 높이는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개편의 기본 방향은 소재 다원화 및 핵심기술 확대이다. 뿌리산업 소재는 1개에서 6개, 핵심기술은 6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동남권 뿌리산업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활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지역 뿌리산업 생태계 훼손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뿌리산업이 고사되지 않도록 생존 지원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이다.

이와함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미래형 뿌리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남권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친환경, 경량화, 고기능화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미래형 뿌리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술 동향 및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남권 뿌리산업 경쟁력 약화

동남권 뿌리산업¹⁾ 사업체수는 2018년 기준 7,959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용접이 2,30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형(2,014개), 표면처리(1,789개), 소성가공(1,045개), 주조(434개), 열처리(380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은 24.4%에 달했으며 용접이 32.1%로 가장 높고 소성가공이 18.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동남권 뿌리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17년중 동남권 뿌리산업 사업체수는 연평균 -2.0%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역 제조업 전체 사업체수 감소율(-0.2%)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²⁾³⁾.

같은기간 업종별로는 소성가공 사업체수가 171개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뿌리산업 사업체수 전체 감소분(-240개)의 71%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금형(-35개), 용접(-29개), 열처리(-20개), 표면처리(-2개)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남권 뿌리산업 사업체수 현황

(개, %)

구분	전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동남권(A)	7,959	434	2,014	1,045	2,300	1,786	380
전국(B)	32,606	1,765	9,744	5,751	7,176	6,962	1,208
비중(A/B)	24.4	24.6	20.7	18.2	32.1	25.7	31.5

주 : 2018년 기준

자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1)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의미. 나무뿌리처럼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제품에 내재(內在)되어 제조업 경쟁력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명명
- 2) 2018년 동남권 뿌리산업 통계는 새로운 모집단 기준과 구성방법으로 변경된 추정결과이므로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비교에는 제한이 있음
- 3) 동남권 제조업 사업체수는 2015년 75,276개에서 2017년 74,907개로 감소하였고 같은기간 동남권 뿌리산업 사업체수는 5,920개에서 5,680개로 감소

동남권 뿌리산업 사업체수 증감

(개)

구분	전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2015년(A)	5,920	340	1,494	1,128	1,457	1,149	352
2017년(B)	5,680	357	1,459	957	1,428	1,147	332
증감(B-A)	-240	17	-35	-171	-29	-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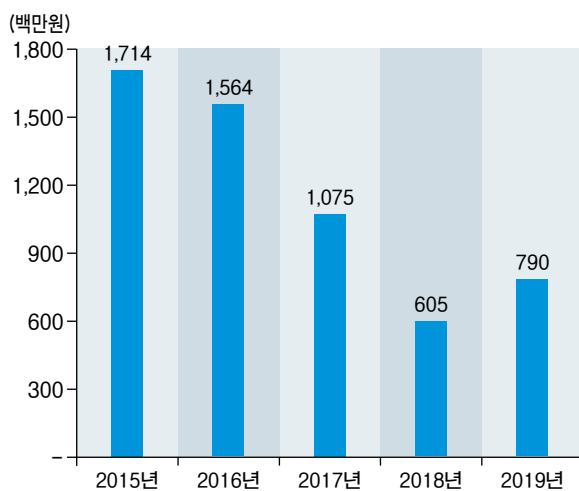
뿌리기술 전문기업 실적도 하락

동남권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실적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제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핵심기술 및 경영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업체로서 동남권에는 212개사⁴⁾가 입지해 있다.

동남권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⁵⁾은 2015년 17억 1천만원에 달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6억원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동남권 제조업 생산 반등의 영향으로 7억 9천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5년과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그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도 6개 기술업종 모두가 2015년과 비교할 때 영업이익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소성가공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접과 표면처리의 경우 조선업 회복의 영향 등으로 2019년에는 전년대비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남권 뿌리기술 전문기업 영업이익



자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기업데이터

동남권 뿌리기술 전문기업 업종별 영업이익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주조	1,539	1,002	596	1,139	1,252
금형	746	489	846	645	410
소성가공	1,093	1,451	446	-690	-880
용접	3,976	3,248	2,999	1,457	2,792
표면처리	1,440	1,444	315	863	1,278
열처리	1,933	2,118	1,900	1,710	1,299

4) 2020년 8월 현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 기준

5) 폐업 등으로 자료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를 제외한 171개사 대상

뿌리산업 범위, 10년 만에 전면 개편 소재 범위는 1개 → 6개, 핵심기술 범위는 6개 → 14개로 확대

정부는 최근 뿌리산업 범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플랜(2020.7월)”을 발표했다. 2011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10년 만에 뿌리산업 범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번 뿌리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방향은 4차 산업혁명,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률 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⁶⁾.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경량화, 친환경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뿌리산업 소재를 다원화 했다. 기존 핵심소재는 금속 1개였으나 세라믹, 플라스틱, 고무, 탄소, 펄프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6개로 개편되었다.

이와함께 뿌리산업 핵심기술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 기술이었으나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센서, 로봇,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 기술이 추가되어 14개로 늘어났다.

뿌리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

구분	개편 이전	개편 이후
소재 다원화 (1개 → 6개)	① 금속	① 세라믹 ② 플라스틱 ③ 고무 ④ 탄소 ⑤ 펄프
핵심기술 확장 (6개 → 14개)	① 주조 ② 금형 ③ 소성가공 ④ 용접 ⑤ 열처리 ⑥ 표면처리	① 사출·프레스 ② 3D 프린팅 ③ 정밀가공 ④ 엔지니어링 설계 ⑤ 산업지능형 SW ⑥ 센서 ⑦ 로봇 ⑧ 산업용 필름 및 지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6) 법률 개정 추진일정: 개정안 마련(~7월) →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8~9월) → 국무회의·국회 제출(10월~)

신규 뿌리산업 추가분야

1. 사출 · 프레스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고체 상태의 고분자 재료를 용융시켜 금형 등의 틀에 주입하고 냉각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기술이다. 기존 뿌리산업 분류는 금속재료로 된 틀을 제작하는 금형기술 중심이었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세라믹 등 다양한 성형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출 · 프레스 기술까지 범위를 넓혔다.

사출 · 프레스 복합성형 기술은 자동차 내외장재, 타이어, 에어백 등 자동차 부품 및 모바일, 디스플레이 커버, 가전제품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특히 고경도, 경량화, 고기능화에 필요한 다종소재 및 첨단 신소재 제품 개발 등을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동남권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2. 3D 프린팅

금속분말, 세라믹, 폴리머 소재를 적층 가공해 3차원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전세계 시장규모는 2017년 73.4억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273억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독일이 5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국인 미국의 78.3% 수준으로 평가된다.

아직까지는 교육, 연구, 시제품 생산 등에 쓰임이 한정되고 제조 현장에서는 비용, 기술적 한계 등으로 활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제2차 3D프린팅 산업진흥 기본계획(2020.6월)” 추진 등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국내시장도 2019년 4,800억원에서 2023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남권 주요산업인 자동차, 항공 · 우주 분야의 부품 경량화, 연료 효율화, 엔진개발 등과 관련한 활용이 기대된다.

3. 정밀 가공

CNC⁷⁾ 등 기계적 공구나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0.1\mu\text{m}\sim 1\mu\text{m}$ 이하의 형상정밀도와 $0.1\mu\text{m}$ 이하의 표면 성상을 갖도록 가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밀가공은 절삭, 특수가공, 초정밀가공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밀가공장비 산업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세계 6~7위권, 국산화율 65%로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은 편이나 고부가가치 장비 상당부분은 독일,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밀가공분야 지원 강화는 공작기계 중심지인 동남권 발전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남권은 자동차, 항공, 선박 등 정밀가공의 주요 전방산업 밀집지라는 것도 긍정적이다. 향후 정밀가공 산업은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조장비의 스마트화 및 토털·엔지니어링 시스템⁸⁾ 구축과 공급이 중요하다고 지적된다.

4. 엔지니어링 설계

제품 기능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설계단계(제품 양산 이전 단계)에서 CAD, PLM⁹⁾ 등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조효율을 높이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제작 이전단계에서 차량 안정성을 확인하는 충돌실험을 할 때,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컴퓨터로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세계 엔지니어링 기술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2019년 기준 5.1%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동남권 중소 제조업체들은 비용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2020~22년중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활용지원 사업 추진 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7)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한 수치 제어 공작기계(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8) 장비 단품 이외에 IT 솔루션,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종합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

9) CAD(Computer Aided Design)는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는 설계정보를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로 추출하여 설계할 때 사용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은 제품 수명주기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5. 산업지능형 SW

스마트공장 고도화 단계에서 필요한 기계 수명예측, 시뮬레이션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설비 등 다양한 생산요소가 스스로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하는 자율적응형 제조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기술이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 재편과정에서 뿌리기업의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전문인력 2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남권의 경우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C5822) 사업체수가 2018년 현재 796개로 전국(12,791개)의 약 6%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역의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생태계 조성 지원이 요구된다.

6. 센서

밀리미터(mm)부터 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센서, 액추에이터 등 전자기계 소자를 제작하거나 뿌리공정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2007년 스마트폰 출시 이후 센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IoT 개발이 확대되면서 자율 주행차, 스마트 선박, 스마트 공장 등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스마트 센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센서산업은 일본, 미국, 독일 등 3국이 전세계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부가가치 융합 센서 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센서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센서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동남권의 경우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C26295) 기준으로 볼때 센서 제조 관련 사업체수는 전국 대비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7. 로봇

자동제어가 가능한 산업용 로봇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로봇산업은 로봇 제조사를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소프트웨어 분야와 전방산업인 시스템 통합 및 제조·서비스 수요처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자동차, 전기·전자 등의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로봇 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은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아직까지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국을 2023년까지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로봇산업 시장규모 15조원, 1억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20개사, 제조로봇 보급대수 70만대로 확대하겠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산업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동남권의 경우 경남이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로봇비즈니스벨트, 마산로봇랜드 등을 조성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다.

8.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고기능성 산업용 필름 및 펄프·유무기 첨가제 적용 하이테크 지류 제조 기술을 의미한다. 고기능성 필름은 전자, 건축, 자동차, 농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되며 하이테크 지류는 고차단성 지류 식품 포장재, 산업용 절연지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저가·범용 필름 및 제지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화 시대에 맞춘 고기능성 필름 및 하이테크 지류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동남권의 경우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C22212) 사업체수 비중은 2018년 현재 전국의 19.1%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C1712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C17129) 등 기능성 지류 제조업체는 약 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뿌리기술 기업 생존 지원과 미래형 뿌리산업 인프라 조성이 중요

최근 동남권 뿌리산업은 코로나19 사태의 부정적 영향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방산업의 장기 부진¹⁰⁾으로 활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충격에 따른 지역 뿌리산업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뿌리사업체의 수요산업별 의존도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2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계 21.5%, 전자 16.3%, 조선 8.0% 순으로 파악되는데 전자를 제외하면 모두 동남권 주력산업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뿌리산업이 코로나19 위기에 고사되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 부문이 모두 힘을 합쳐 생존 지원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대출만기 연장, 상환유예, 대출금리 인하, 고정비용 지원 등과 함께 공공부문 조기발주, 판매채널 다각화 지원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6대 뿌리기술 수요산업별 의존도

(%)

구분	전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1위	자동차 (27.5)	기계 (37.6)	자동차 (37.0)	자동차 (26.7)	기계 (22.5)	기계 (24.8)	자동차 (33.9)
2위	기계 (21.5)	자동차 (17.5)	전자 (19.3)	기계 (24.9)	자동차 (20.7)	자동차 (17.6)	기계 (25.7)
3위	전자 (16.3)	전자 (7.5)	기계 (15.3)	전자 (13.1)	조선 (18.7)	전자 (17.3)	전자 (8.9)
4위	조선 (8.0)	조선 (6.3)	조선 (1.7)	조선 (3.7)	전자 (13.0)	조선 (6.9)	조선 (6.9)
5위	항공 (1.1)	항공 (0.3)	항공 (0.5)	항공 (0.8)	항공 (1.6)	항공 (0.9)	항공 (2.1)

주 : ()내는 2018년 기준 매출액 의존도

자료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10) 2016~2020년중 연평균 생산 감소율은 조선이 -7.6%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기계(-2.0%), 자동차(-1.6%) 순으로 조사

이와함께 급변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맞춰 미래형 뿌리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범용제품 위주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형 뿌리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정부가 뿌리산업 소재 및 기술 범위를 개편하고 뿌리기업을 현재 3만개에서 9만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최근 발표하였다.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대응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동남권 뿌리산업은 전국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위상을 보여 왔다. 기존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기술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동남권 주력업종과 산업 연관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뿌리산업 범위 개편에 따른 동남권 뿌리기업의 수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자부품업, 정보통신업 등 동남권의 비중이 낮은 미래형 산업군이 다수 포함된 데 기인한다. 특히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새롭게 포함된 일부 뿌리기술은 동남권 사업체수 비중이 전국의 5~10%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동남권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친환경, 경량화, 고기능화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미래형 뿌리산업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래형 뿌리산업의 기술 동향 및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세부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3D 프린팅사업 진흥 기본계획”, 2020.06

산업연구원, “2020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 2020.07

_____, “글로벌 정밀가공장비 산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2020.04

산업통상자원부, “2018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0.04

_____, “로봇산업 발전방안”, 2019.03

_____,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 2020.07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제조 엔지니어링 설계기술 및 산업동향 보고서”, 2020.05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www.kpic.re.kr

통계청, www.kosis.kr

한국기업데이터, www.cretop.com

BNK경제인사이드 발간목록

2016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Big | 더 큰 믿음으로

B



지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로 | Network

N



Knowhow | 시대를 리드하는 금융 노하우로

K



희망을 있다
행복이 있다

희망을 주는 행복한 금융 - BNK금융그룹

BNK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BNK캐피탈 BNK투자증권 BNK저축은행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BNK시스템 BNK벤처투자 BNK생농구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0-08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s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0년 8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